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인기...지역경제 '활짝'

여름 피서지로 큰 인기...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노릇 톡톡 오는 13일까지 운영...많은 피서객들의 인기 끌 것으로 예상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권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 이날 하루 동안 2천 명이 넘는 가족 단위 피서객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볐다.

방문 피서객들은 물놀이장 주변 잔디밭에 마련된 파라솔에 모여 관내 음식점에서 배달된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등을 먹어 한층 즐겁게 물놀이를 했다. 군은 물놀이장 내 취식을 위해 주변에 대형 그늘막과 6인용 파라솔 80여 개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물놀이장 내에 음식점 연락처를 게

시해 물놀이장 내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평읍 중국집 사장 A씨는 "물놀이장 개장 후 배달이 늘어 매출이 3배 정도 올라서 좋다"며 웃음을 지었고 함평읍 B씨는 "저녁에 치킨 집 2곳을 전화했으나 재료 소진으로 주문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물놀이장 개장 기간 중 평소 대비 2~3배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도 있어 물놀이장의 인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김오선 관광정책실 시설운영팀장은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3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여름 인기 피서지로 덕분에 지역경제도 크게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마치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관광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4일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4일 기준 1만 8천명이 입장하였으며, 안전사고 예

방과 원활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수용인원을 최대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달 13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안전사고 수질이 깨끗해 앞으로도 많은 피서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조계층 육성' 용역보고회

기존 사업 성과분석과 창조계층 육성을 영암군이 일자리 혁신에 나섰다.

영암군이 지난 3일 군청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성과분석 용역' 중간보고회와 '로컬 크리에이터 등 영암형 창조계층 육성용역' 최종보고회를 함께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현재 영암군이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고, 영암형 창조계층 육성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보고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국내·외 사례 분석에 이어 영암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 소개, 사업 제안이 있었다.

이런 보고내용을 토대로 보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토론하며 영암군 일자리 사업의 깊이와 폭을 더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자리와 인력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작...비대면 서비스

영광군은 지난 7월 31일부터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여 5개의 만성질환 건강위험 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1개 이상인 대상자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전자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24주 동안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며, 초기·중간·최종 방문건강검진을 기반으로 전문인력(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상담 후 해당하는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관련 전자기기(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사업 대상자는 영광군민 중 선착순 100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자·약물 복용자가 아닌 사람이며, '체중 건강' 앱과 호환되는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불법 어업 행위 근절 확고한 의지

신안군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뱃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버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버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



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33척의 바지선에 대하여 어구절단 27척, 어구철거 6척을 단속하였고, 단속에 저항하는 어업인은 현장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경로당(무더위 쉼터)에서 폭염 피하세요

무안군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무안을 대곡 경로당 등 66개소를 신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관내 등록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414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긴급 냉방비를 예비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는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가 동상태 점검과 이용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운영상태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입식테이블과 의자, 방진 방충망, 자동심장충격기, 부식비 등을 지원하며 무더위쉼터 이용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폭염대책기간(~9.30)에는 무더위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어르신들에게 본격적인 폭서기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달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힘쓴다

목포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최근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을 위해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범죄예방 CCTV 및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범죄 사각지대 개

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범죄예방 CCTV는 33개소 공중화장실 외부에 설치됐고, 함께 설치된 로고 라이트(LED 경관 조명기구)는 방범 촬영기기가 설치되었을

을 표시해 범죄 예방을 계도하게 된다.

불법촬영 감지장치(T가드)는 모두 29개가 설치됐다. 이 장치는 칸막이 위로 넘어오는 물체를 감지하는 것으로, 휴대전화기 등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할 경우 센서가 이를 감지해 경고를 울리고 LED가 점등되는 방식이다. 화장실 이용자는 불법 행위자의 범죄시도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어 범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